

외래 잡초 발생 및 방제전략(7)

돌소리쟁이

(broad-leaved dock)

유럽이 원산지인 외래잡초로 다년생이다. 목초지에 발생시 초지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애기수영, 썩 등의 다른 잡초의 발생을 촉진하여 초지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 경엽처리 제초제를 살포할 경우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돌소리쟁이(학명 : *Rumex obtusifolius*, 영명 : broad-leaved dock)는 유럽이 원산지인 외래잡초로 다년생이다.

산기슭이나 산비탈의 물가 주변, 황무지, 길가 그리고 밭과 그 밖의 농경지, 잔디밭, 목초지 등지에 침입하여 심한 잡초피해를 주며 목초지에 발생시 초지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애기수영, 썩 등의 다른 잡초의 발생을 촉진하여 초지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

돌소리쟁이는 수산(蓆酸)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사료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가축이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중독을 일으켜 피부염 등을 유발시킨다. 다습하고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며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 종자와 근경(根莖)으로 번식을 하는데 종자가 주된 번식수단이다. 종자에서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가을에 발생하며, 지하경에서 발생하는 개체는



박재읍
농촌진흥청

가을에 근출엽이 나와서 근생엽으로 월동한다.

돌소리쟁이의 종자생산량은 주당 5,000~7,000립 정도이며, 토양에서 종자수명은 20~25년으로 길다. 종자의 발아온도는 5~30℃의 범위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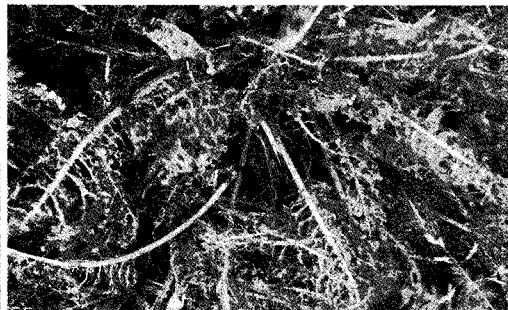
적온은 10~15℃로 다른 잡초보다 낮은 편이다.

종자에서 발생한 돌소리쟁이의 실생묘(實生苗)는 일반적으로 초기 생육이 느리며, 주근의 발육이 정착될 때까지는 다른 식물에 대한 경쟁력이 매우 약하다. 종자는 바람, 비, 동물 등에 의해 전파되는데 야생조류나 소의 소화관을 거쳤어도 종자는 살아 있으나 닭이 먹은 종자는 모두 사멸되는 특징이 있다.

돌소리쟁이는 농업상 특히 목초지에 피해를 많이 주는 잡초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방제곤충 먹기 전(前)



방제곤충 먹은 후(後)

첫 번째로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연중 발생하고 내한성(耐旱性)과 혹한(酷寒)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둘째로는 개화기간이 길고 개화 후 얼마 되지 않아 종자는 곧 성숙된다. 셋째는 종자의 생산량이 많으며 발아습성은 종자의 발육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 한번에 발아하지 않는다. 넷째로 종자는 빗물 등으로 쉽게 운반되어 전파하며 흙 속에서 오랫동안 생존하고 마지막으로 뿌리의 재생력이 강하여 쉽게 방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경운 등으로 직근(直根)이 절단되었을 때에는 방제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나 뿌리 절편에서 다른 새로운 개체가 형성되어 증가 할 수도 있으므로 경운하였을 때에는 잔뿌리도 모두 없애야 한다.

화학적으로 돌소리쟁이 방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종자와 지하경으로 번식하므로 종자가 발아하기 전에 펜디유제 등 토양처리제를 살포하고 발생 초·



화 서

중기에 디캄바액제나 메코프로프액제 등으로 경엽처리하여 방제할 수 있다. 경엽처리 제초제를 살포할 경우 주위의 농작물 및 수목에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돌소리쟁이만을 가해하는 곤충(좁쌀색잎벌레, 분홍무늬들명나방)을 이용하여 생물적으로 방제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충남 서산의 한우 개량사업소에 기술이전한 바 있다.

돌소리쟁이와 유사한 잡초로는 소리쟁이(*R. crispus*)가 있으며, 잎모양만 다를 뿐 생리·생태적 특성은 두 잡초 모두 비슷하여 방제방법도 같다. ♪